



보 도 자 료

제 공 일	2021. 6. 21(월)	
보 도 일	2021. 6. 21(월)~	
사진유무	없음	
제공부서	기획경영실	
담당자 및 문의처	정봉희 경영지원 과장	(일반) 041-840-1192
		(H. P)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nam.go.kr)에서도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 해양폐기물 분야 탄소중립 2050 이행방안 모색 및 지역밀착형 탄소저감 방안 적극 지원해야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장영태)과 공동으로 21일 '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서울선언문 해양폐기물 이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공동 주관한 해양폐기물 분야의 3번째 행사로, 최근 P4G 서울선언문에서 제시된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결속 강화와 해양폐기물 탈탄소화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먼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유엔환경회의(UNEA5.2)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논의 국제동향과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충남연구원은 지역밀착형 오션뉴딜사업과 연계한 충남형 해양폐기물 탄소저감 방안을, 국립수산물과학원과 (주)포어시스에서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한 현황과 기술개발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번 P4G 서울선언문('21.6.1)에서 해양폐기물 분야를 중점적으

로 다룬 만큼 해양폐기물 탄소저감 방안 마련과 국제적 결속력 강화가 중요한 이행방안으로 떠올랐다.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플라스틱 문제해결과 해양폐기물 분야 탈탄소화(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각 기관들의 연구, 국제협력, 정책개발 지원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이다.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윤종주 박사는 “특히 해양폐기물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충남도는 ▲국내 최초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전처리 시설) 건립 ▲스마트 해양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기반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현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추진되는 탄소중립 오션뉴딜 사업에서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비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충남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등 민관산연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다.